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생명보듬주일

2019.09.08 (제7회)

생명의 주님 이 땅의 고통과 상처를 회복하소서

「장년부 설교문」 「장례예식 설교문」 「장례예식서」 「청소년 설교문」 「교육교재」

제7회 생명보듬주일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주일

2019.09.08.(주)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http://lifehope.or.kr/>

목차

목차	04
초청의 말씀 -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07
기념의 말씀 -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08
축하의 말씀 -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09
자료	
Chapter. 1 - 설교문	11
Chapter. 2 - 추도식 설교문(가이드, 설교문, 예식서)	18
Chapter. 3 - 청소년 설교문	27
Chapter. 4 - 교육자료	22
소개	
주관단체 소개	38
함께하는 단체 소개	39

◆

생명보듬주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9.10)을 즈음하여
한국교회가 이 땅의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예배와 기도로 함께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19길 5, 201호 T 070-8749-2114 / F 02-2632-2005

이 사 장 임용택 목사
대 표 조성돈교수
이 사 정성진 김양재 권구현 장동학 조홍식 정현구 이종국 유영권
노용찬 최의헌 김대동 박상철 장철상 김학중 임재웅 박광리
지 부 경기북부(고영수) 경기남부(이명환) 오산(박형윤) 청주(오동근)
울산(한기양) 광주전남(노용찬) 전북(박용태) 충남(오세훈) 강원(이상주)

**생명헌금
후원안내**

- ◆ ARS후원 1877-1910
- ◆ 국민은행 924501-01-317709
: Life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 ◆ 국민은행 093437-04-007997
: (재)한빛누리(LifeHope) *기부금영수증 발급

[생명보듬주일 공동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이 날 저희가 생명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때로 그것이 버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죽음의 벼랑 끝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러한 망무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헌신도 허락하여 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보듬주일을 함께 지킵시다.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이사장 임용택 목사

가수 안치환 씨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람은 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사람을 지으신 분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도록 세워진 생명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에 이르고, 교회가 7만개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1위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2012년부터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라는 이름으로 자살예방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계 자살예방일(9.10)을 전후한 9월 둘째 주일 오후에 실시하는데 이제 안양시민 만여 명이 참석하는 시민운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에게 생명보듬이 교육을 실시해서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을 돕도록 하고, 교회 주보에 ‘생명의 한칸운동’으로 희망의 전화(☎12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생명의 전화(☎1588-9191)를 실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결실이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은 요즘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예방 활동을 펼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2011년 이후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한다면 자살률은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사라질 것입니다. 물질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이 땅에 소망으로 인식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9월 둘째 주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생명보듬주일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생명보듬주일을 기념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와 문화적 향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산업사회가 단순히 풍요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소유하는 어려움과 풍요로움의 경계 밖에 소외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집단적 강제들, 가부장적 권위주의, 미모지상주의, 능력중심주의, 과시적 소비중심주의 등이 자리잡은 사회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노인들, 직장인들, 수험생들, 군인들, 대학생들, 무직자들, 소방관들, 연예인들의 자살률, 왕따에 의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살 유가족들의 생의 파탄이 심화되고 연쇄자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동반 자살을 유인하는 자살 정보 및 자살 동조 사이트들이 수없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살 위험 군에 속하는 심각한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가 깨어지고, 사회적 자본이 한없이 약화된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살로 이어질 확률은 낮아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살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신뢰가 자살의 사회적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것이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사회로 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생명존중 신학을 가진 한국교회야 말로 사회적 신뢰회복과 생명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절망이라는 병을 앓으며 자살의 벼랑 끝으로 밀려가는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심폐소생술을 써야 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른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마지막 동행과 경청의 기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생명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신뢰사회 형성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닌 생명살림의 가치와 사회적 자본이, 자살증후군에 속한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줄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삼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생명문화운동을 축하하며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공동)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

생명 문화 운동에 함께 합시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끄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행동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34명, 한 해 12,000여 명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자살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각한 인간관계의 갈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년의 자살이 심각하지만, 청소년과 장년의 자살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한국교회는 어찌하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끄는 자살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의욕을 잃은 이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살 용기와 가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2019년 제7회 <생명보듬주일>은 라이프호프가 주관하여 진행하지만,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이 동참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월 8일 <생명보듬주일>에는 회원 교단 모든 교회들이 공동기도문과 설교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에 문화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행동합니다.

이번 <생명보듬주일>에는 특별히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의 말씀에 따라, 자살로 사랑하는 이를 잃는 크리스천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상실한 마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을 교회가 함께 회복하고, 청소년들에게 귀한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에 귀한 생명의 문화가 회복되는 일에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 모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보듬주일
목회 자료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노용찬 목사
빛고을나눔교회 담임목사,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이사

1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
하지 마옵소서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
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
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4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
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
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 내 눈이 근심
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8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뚫이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 1-10절)

❶ 오늘 2019년 9월 8일은 이 땅의 온 교회가 지키는 생명보듬주일입니다.

생명보듬주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 예방과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2003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2004년 9월 10일 제1회 세계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진 데서 유래되어 매년 9월 10일을 전후 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보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자기 생명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 2017년 통계를 보면 한 해에 12,463명이 고의적 자해(자살)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 평균 34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이기는 했으나 이것은 사망 원인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중에서 1위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 외에는 생명을 잃을 이유가 없는 이 땅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저버리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더욱 열심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스러져가는 생명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듬고, 돌보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고, 정신적 충격으로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가슴에 묻고 아파하면서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영혼과 마음을 돌보아 주어서 삶에 대한 새 희망을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분명하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롬12:15)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② 먼저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편을 시작하면서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견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실존의 문제를 지닌 인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 보잘 것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실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③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편 4절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출구가 없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하여 시편 6편 6-7절에서 이러한 절박한 인간 실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쇠약함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탄식에 지쳤고,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근심으로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대적들’로 지칭되는 이러한 사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④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알려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뜻하는데,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약 240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구원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공동체입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심정을

공감하며, 그들을 보듬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롬8:26)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고 보듬고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구체적인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혹은 친한 친구들 중에 자살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을 경우, 남아 있는 유가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비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즉 생존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웃거나 좋은 것을 먹거나 즐거운 장소에 가는 것에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이래서 되는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자 유가족들은 우울한 감정을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자신의 그러한 내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내밀어 주어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의지와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살아갈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편 5절에서 다윗은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스올에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 말한다면, 만일 이대로 그냥 멸망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 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의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에베소서 1장 11-12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소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각각의 생명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지금의 모든 고난과 환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려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편 전체를 보면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8-10절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라고 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으며 간절히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9절에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 주셨다.”고 외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별벌 떨 것이며,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은 마치 눈앞에 보듯이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별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요법(Logotherapy)을 창시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극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아우슈비츠’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눈 앞에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중노동을 했지만 씻을 물은커녕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랭클은 하루 한 컵씩 주는 물을 반 컵만 마시고 남은 물은 세수를 하기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조각을 구해 면도까지 하며 깨끗하게 자신의 용를 가꾸었습니다. 내일이 없다며 자포자기 하는 다른 포로들과 달리 그는 생기가 있었고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 나에게겐 소망이 있어.” 죽음의 수용소에서조차 놓지않았던 희망은 끝내 그를 수용소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희망의 중요성을 일생 동안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짚과 고통을 채휩하시며 짚어지셨던 사랑의 법을 따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⑥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의 한 구석에서 남모르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애굽의 압제와 노역에 힘겨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라는 외침에 귀와 마음을 확실히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여, 그 생명을 보듬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롬12:15).

함께 다짐하는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생명보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생명과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게을리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위로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있는 그분들의 외로움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짧은 잣대로 보면서 오해와 편견을 가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그 생명을 살리고 보듬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자매가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보듬이가 되어 이 세상의 생명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로고 하시기 위해서”(요10:10)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빛과 생명의 문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빛이시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살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잃은 성도를 위한 추모예식 가이드

많은 자살자 유가족들은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오해로 인한 상처, 위로받아야 할 교회와 신앙공동체 속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자살의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는 더욱 지혜롭게 유가족을 돌보고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 조심스러운 접근과 지혜로운 장례/추모예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자살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우선 목회자가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장례를 치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만이 유가족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공동체가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긴급한 유가족의 필요를 살펴보고, 사고 이후의 과정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 자살로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유가족들은 더욱 복잡한 절차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찰서나 장례식에 동행을 하거나, 유가족의 심리상태를 잘 지켜보며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장례 및 추도식은 교회에서 먼저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며 진행합니다.

3. 신앙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상 징후 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 유가족들의 경우, 일반적인 어려움과는 다른 심리적 불안함과 우울증, 다양한 정신 관련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른 개입이나 주관적인 도움을 지향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4. 유가족을 위한 돌봄 사역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교회 상황에 맞는 자살예방과 유가족을 위한 돌봄사역들을 준비하고 실천합니다.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실천합니다.

5. 추도식관련

； 자살유가족 추도예식은 설교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적, 회복적 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① 목회자는 유가족들에게 추도예배에 대한 의견과 일정,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고, 함께 예식에 참여할 대상들을 정하도록 합니다. 유가족들은 추모일을 중심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미리 사전에 상담과 심방을 통하여 심리적인 지지와 함께 추모식을 통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② 상실한 가족을 충분히 생각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고인에 대한 정보와 좋아하는 찬양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추모식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③ 추도식 설교는 유가족들의 심리상태에 따라 준비하며,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행합니다.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교리적인 부분은 지양하고, 고인에 대한 애도, 가족의 심리적 인지지, 성경말씀을 통한 위로, 권면과 감사의 요소로 준비합니다. ④ 가족들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예수님은 상처입은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영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함께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생명공동체를 통해 한국교회가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함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¹⁾

장진원 목사
도림감리교회 담임목사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3 믿음으로 모세가 낫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 22-29절)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사랑하는 고인을 떠나보내며 추모하는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올 수 있겠니?”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어서 저 하늘의 천국을 얼마나 자신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두려움 역시 큰 것 같습니다. 죽음은 고통이고 끝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여전히 내 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영생도 믿어지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

1)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김영봉, IVP) 추도예식설교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 천당 가는 티켓을 손에 거머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죽음이 공포요 두려움이 됩니다. 이 두려움은 남의 죽음, 다른 죽음에 대해서도 정죄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당황스럽고,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갈 천국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보라고 하셨고 천국을 살라고 하셨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써라. 그것이 잘 믿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 더 깊고 넓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12:25-27절,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게 하 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모세)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경고입니다. 그 순간에 ‘흔들려 없어질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는 것 속에서 흔들리는 삶, 생명들로 살아갑니다. 주위를 보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끝이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면, 비로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됩니다.

이것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끝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

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1:23)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12:22-24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 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 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진실되게 회개한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과 천사들의 집회,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심판의 때에 가서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실존하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소망이 있음을, 또한 이 천국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맞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장례찬송을 부르다 보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가 있는가 하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함께 찬양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하늘나라 만을 소망하여, 이 땅에서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나 천국같아요! 세상에는 나가기 싫어요!”는 옳은 감정이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참된 믿음과 열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당신들을 왜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생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진실로 믿는다면, 때가 되었다 싶을 때 기쁘게 떠나는 준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다 할 때까지,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
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
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
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빌1:23-25)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무엇입니까?

“감사와 평안”, “거룩과 의롭게 사는 삶”

히브리서 13장 1-5절,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
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혼인을 귀하게 여기며, 음행하
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없어야 하며, 삶에 자족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인격, 실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신하지만, 또한 마지막 29절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저 하늘의 소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준비는 오직 믿음 뿐입니다.

추모의 마음으로 모인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은 떠나갔지만, 사랑은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장례 예식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99회 총회정책문서 채택
- 자살에 대한 목회적용지침서」 중 발췌

예식사/ 집례자

우리는 지금 조금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 000씨(성도, 직분명)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가족들과 교우들 모두는 황망한 마음입니다. 그를 위기상황에서 구해내지 못한 죄책감과 그를 생전에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조금 일찍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그가 우리를 아파 두고 먼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으며 생의 마지막 맞이할 때의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가난한자, 병든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그가 병들어 괴로워할 때, 그가 인생길에서 힘들어하며 고아같이 두려워하고, 과부처럼 외로워할 때 그에게 다가가지 못한 죄인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오늘 고 000의 장례예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침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의 고백/ 다같이

(침묵가운데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사죄의 확인/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길 빕니다.

회중 아멘

찬송/ 485장 “세월이 흘러 가는데”/ 다같이

1.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기 아주 없네
2. 저 뵈는 하늘집에서 날 오라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3.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 거문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4. 큰 풍과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후렴)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기도/ 말은이

(이 기도의 순서는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하였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기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식에 참여한 목회자 혹은 장로로 기도를 드리게 하며,
기도문은 먼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성경봉독/ 집례자

설교/ 설교자

참고 설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예장통합 교단 '자살에 대한 목회지침서' -> 다운로드)

기도/ 설교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000성도(직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품에 안아 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 땅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중대한 죄악이었으나, 그를 넓으신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 남아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마음을 받으시사,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애통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1장 “외롭게 사는이 그 누군가”/ 다같이

1. 외롭게 사는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2. 위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이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네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3.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네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후렴)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네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고인약력소개/ 말은이

(세상에서의 삶과 더불어 신앙생활과 교회에서의 섬김에 대한 낭독 혹은 영상을 소개한다)

조사/ 말은이

(먼저 말은이가 고인에 대한 기억들을 정리하여 전달한다.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한사람씩 고인에 대한 의미 있는 기억을 회상하며 나눌 수 있다.)

찬송/ 608장 “후일에 생명그칠 때”/ 다같이

1.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2.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녕히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있네
3.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4.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켜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 가겠네
(후렴) 내주예수 뵈을 때에 그 은혜 찬송 하겠네 내 주 예수 뵈을 때에 그 은혜 찬송 하겠네

축도/ 설교자

인사/ 말은이

(호상 또는 유족대표가 나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남은 절차에 대해 광고한다)

“부르는 소리”

조용선 목사

온무리교회 담임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학원선교 전문위원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
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
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5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 오기
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7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 내가 나의 맹렬
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
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0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
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
세아 11장 1-11절)

뮤지컬 ‘루카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에요. 캐나다 토론토 ‘데이브레이크’라
는 지적장애인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앤디와 줄리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아기를 갖게 되는데 의사로부터 가슴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천적인 기형 때
문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진단을 듣습니다. 땀줄을 뚫으면 15분

내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온 공동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정된 이별을 알면서도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아빠앤디와 엄마 줄리는 애뜻함 기다림 속에 아기를 기다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며 아빠 앤디는 말합니다. ‘너는 나의 루카스, 네가 어떤 모습이든 아빠는 널 사랑한다.’ 텃줄을 자르면 15분밖에 살지 못하는 루카스는 부모의 사랑과 모든 이들의 간절한 기도로 무려 17일 동안 살다가 아기 루카스는 사망합니다. 결국 루카스는 눈을 감았지만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 봉사자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였습니다. 부모와 아기로 인해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이지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 ‘장 바니에’라는 캐나다 사람이 세웠습니다. 장 바니에는 소위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고, 교수였는데 1964년 정신병원을 방문했을 때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막10:21)는 말씀대로 장애인 공동체를 세웁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공동체 이름은 ‘라르쉬, 방주’라는 의미입니다. 바니에는 ‘약한 자들에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애인 공동체 사역을 이어 나갔습니다. 2019년 5월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라르쉬 공동체는 전 세계에 150여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토론토에 있는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입니다. 데이브레이크는 ‘새벽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 공동체에 17일 동안 잠시 살았던 아기가 있었는데 ‘루카스’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누가, 빛’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공동체의 이름을 만든 것이죠. ‘새벽의 빛’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느끼게 합니다.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와 관련된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예일대학교 교수 헨리 나우웬이 1985년 데이브레이크에서 사흘 동안 침묵 수련회에 참가합니다. 달변가로 명성이 났던 그가 아무 말 없이 기도만 해야 했고, 장애인들의 발을 씻겨주고, 밥을 함께 먹으며 지냈어요. 지적장애아 존은 만나는 사람마다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묻곤 했는데, 나우웬은 그 질문을 받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내 집은 어디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우웬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예일에서 하버드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에 공동체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당신과 함께 있던 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교수직을 사임하고 공동체로 들어가요. 1985년부터 1996년 별세할 때까지 나우웬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하버드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몇 명 안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보 같이 보일 수 있겠지요? 그

러나 그가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저술한 영성 관련 책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어요. 나우웬은 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봉사자들은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을 천사라고 부른다고 해요. 같이 살다 보니 봉사자들이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장애인들이 천사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천사로 불린 장애인들은 봉사자들을 만날 때 봉사자들의 신분, 능력, 부유함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졌고, 바알 우상 앞에 절했어요. 사람들이 신분, 능력, 부유함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라고 부르시네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묘사한 것은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아기 아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이집트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셨어요. 만 한 살 전후된 아기,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시는 것은 암흑에서 생명의 길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 능력, 부유함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치유, 회복, 구원의 은혜를 외면해요. 이집트의 도움을 바라기도 하고, 앗수르의 도움을 바라기도 하고, 바알신에게 절하기도 한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멍에를 지는 것과 같았어요. 멍에는 가축들이 지는 것이고, 가축들도 멍에 지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의 줄로 인도하려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멍에를 지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놓아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불붙듯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불과 같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돌아오라’. 호세아 중심 메시지는 ‘돌아오라’ 입니다. ‘더 높은 신분,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부유함을 추구

하느라 나를 외면한 사람들아,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부부와 그 아기 루카스를 보면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쁨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애통해 하는 마음을 보았지요. 아기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앤디 부부와 아기 루카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하실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애통하면서도 십자가 죽음을 허용하신 것은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눈이 부시게’ 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연을 맡은 김혜자씨가 백상예술대상을 받으면서 드라마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읽는 것을 보았어요.

“내 삶은 때로 행복했고, 때로 불행했습니다. 새벽의 짙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고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딸이었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현재 별 것 아닌 모습으로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눈이 부신 인생을 산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자신들도 부모처럼 눈이 부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돌아오라!’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맴돌기를 바라요.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

심순덕의 시를 소개할게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자식들이 속 썩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렇게 바뀌보았어요.

“예수님이 겻세마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서 매질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숨지신 것을 본 후론, 아,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생명보듬주일입니다.

자녀를 부르는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돌아오라’ 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늘 기억
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보듬이, 생명의 보듬이”

조은하 교수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교육위원장

목원대학교 교수

1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2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4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 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니까 8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1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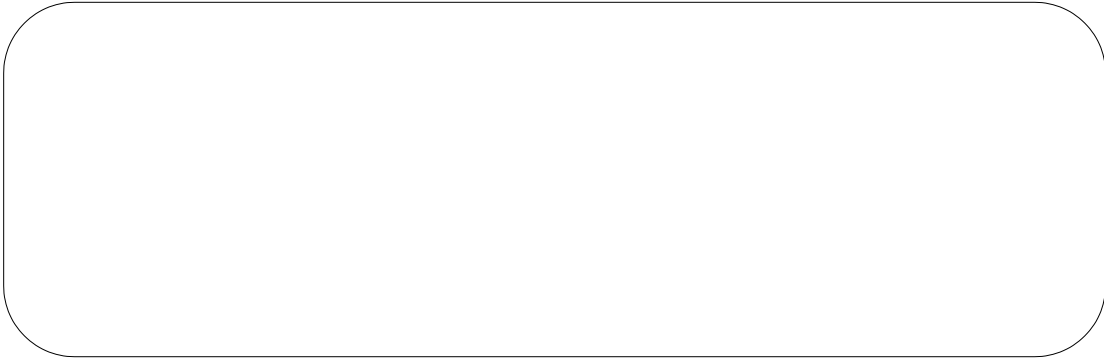
◆ 이야기 속으로 : 우리에게 문자가 도착했어요.

어느 날 친구의 카톡을 보니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써 있어요. 사진도 물론 다 내렸고요. 친구하고 아주 가깝지는 않아도 가끔씩 연락을 하는 사이였어요. 요즘 우울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 아주 많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포스트 잇을 나누어 주고 학생들이 나름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써서 내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 해 볼까요?

거룩한 수다 Talk, Talk,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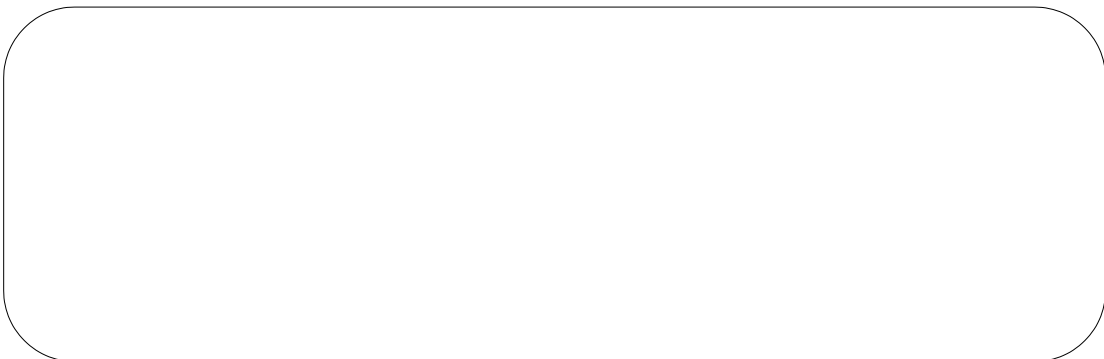
1.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할만큼 힘들 때가 있었나요?



2. 친구가 저런 문자를 보냈을 때 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다른 친구들의 대답에도 귀 기울여 볼까요?



3.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았을까요?



** 아이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참신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를 우리 함께 들어 볼까요?
(요게벳의 노래)를 함께 듣고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보내야만 했던 요게벳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여야 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엄마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은 것도 잠시, 아기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 고민하게 되요. 어쩔수 없이 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 물이 들어오지 않게 잘 막은 다음 강에 흘려보내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아기를 발견하고 견져서 보호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눈을 감아도 보일만큼 사랑스러운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한 아기 때에 엄마와 떨어져서 강물에 흘러가야 하는 아기 모세는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엄마는 아기를 보내고 울면서 울면서 돌아왔을 것이고 아가는 홀로 갈대상자에 누워 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이 끝날지도 모를만큼 위험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공주의 손으로 견져내게 하십니다. 그 누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서 이끌어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말씀과 수다: Talk, Talk, Talk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물에 떠서 내려오는 모세처럼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공주가 되어 주어

야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갈대상자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듬이 교육에서도 생명지킴이의 역할은 적어도 7가지는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친구가 힘들어 할 때, 혹은 암울한 문자를 남겼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야? 너 혹시 OO를 생각하는 것이야?”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물어봐 주는 것이어요.

그리고 친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상담센터에 연결을 꼭 해주어야 해요.

◆ 우리들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내일을 기대하세요.”



앨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명대사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멋지게 바뀔 수 있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혹시 지금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나요? 나의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는지 한번 관심있게 돌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희망의 보듬이가 되어 줄 수 있겠지요?

“괜찮아?”

“내가 가서 같이 있어 줄까?”

“선생님 도움을 받아 볼까?”

우리의 관심있는 눈길, 한번의 대화, 그리고 찾아가는 손길이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cAmq9LH46Xg> 요게벳의 노래



단체 소개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생명의 문화를 통해 자살의 고통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설립된 자살예방전문단체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그 원인을 개인 혹은 사회로 구별하여 생각하는 자세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중요한 세대 통합, 사회 통합의 주제입니다. 교회도 이제 이러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화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핵심가치로 가지는 교회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관계와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교회의 이러한 힘을 극대화하여 자살률을 낮추는 일에 다음과 같이 헌신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역 및 핵심가치 (Ministry & Value)

- 교육 사업(교육&연합) :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명보듬이’ 무지개교육을 실행하고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합니다.

◆ 교회지도자과정 (신청문의)

- 상담 사업(돌봄&나눔) : 자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 입은 개인과 공동체를 돌보며 나눔 속에서 영적 회복과 치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 캠페인사업(문화&참여) :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와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생명 문화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사명선언문

LifeHope는 이 땅에 상처입고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가치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24년 이래 한국의 그리스도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치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이고 힘쓰는 하나님의 선교 기관입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706호
T 02-742-8981 / F 02-744-6189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교회 교단들의 연합체입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에 따라 오랜 역사를 갖고 성장해온 교단들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한국 교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912호
T 02-744-6200 / F 02-744-620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목회자 자신과 섬기는 교회와 소속된 15개 교단 목회자협의회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빛과 소금의 본분을 더하고자 모인 협의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되돌릴 것과(Unity), 우리가 속한 목회 현장의 참된 갱신을 위해 노력하며(Renewal), 정의의 소리와 청빈의 삶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봄으로(Diakonia) 이웃과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910호
T 02-586-8617 / F 02-586-8619



한국교회봉사단은 선교초기부터 이 땅에 병원과 학교, 그리고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설립해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온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한 디아코니아(Diakonia) 연합기관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705호
T 02-747-1225 / F 02-764-1225



전국신학대학협의회는 한국사회 속에서 신학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신학교육의 발전을 꾀하고자 1965년 5월에 창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육기관 협의회입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우수한 사회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401호
T 042-829-7370 / F 042-829-7362

